

민간이야기집

착한 두 형제

리군필 저



연변인민출판사

착한 두 형제

리군필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신분희
기술설계: 정선숙
삽 화: 박창우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善良的兄弟: 朝鲜文 / 李君弼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50-3

I. 善… II. 李… III. ①民间故事-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63333号

善良的兄弟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5.375 字数: 14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50-3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을 내면서

세월의 흐름이란 참 알고도 모를 일이다. 지난해에 첫 가사집을 내고 올해에 들어와 또 두번째 가사집과 민간이야기집을 내게 되었으니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동년시절에 세상 모르고 덤벼치다보니 열한살에야 겨우 학교문에 들어갔고 10년동란으로 한창 “란시판”이 벌어지던 1967년도에 소학교를 졸업하다보니 소학교지식도 별로 옳게 배우지 못했었다. 그런 내가 50대 중반이 넘어서 작품집을 연속 내놓다니 스스로도 “장한것” 같다.

이처럼 기쁨 때 쓰라렸던 옛일이 떠오르는것은 인지상정인가보다. 리씨조선의 궁정의사로도 있었다는 조상들의 제21대 후손인 나의 아버지가 10년동란시기

생벼락같이 “력사반혁명분자”라는 루명을 쓰고 비명으로 돌아가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식구들은 수많은 고배를 마셨건만 그래도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가보”가 있어서 의사로 되었기에 이만치라도 살아갈수 있는 것 같다. 비록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하여 체계적인 의학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렸으나 나도 젊은 시절에 향촌의사로 되어 립상에서 실천하며 기술을 닦아 1989년에는 연변중의원 간담특진실 책임의사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연길시간담풍습병원 원장으로, 지금은 연변에서 유일한 “연변간담연구중심”을 세우고 주임으로 일하고있다.

그처럼 어려워도 웬 일인지 글을 써서 지난 인생을 글로 남기고싶었다. 별로 변변치 못한 수준이라도 배우면서 창작을 하고싶었다. 그래서 닥치는대로 문학작품들을 열심히 읽었고 거듭 실패하면서도 부지런히 작품을 써서 투고하였다. 많은 글들이 퇴고당하였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읽고 쓰고 또 투고하였다. 이렇게 의학공부와 창작에 일체 정력을 몰부었다. 1985년에 드디어 서정시 “할미꽃”과 옛이야기 “착한 두 형제”가 《장백산》잡지에 발표되었다. 그 한떨기 “할미꽃”과 “착한 두 형제”가 나를 계속 창작의 길로 나아가도록 고무하고

밀어주었었다. 나는 시, 가사, 옛이야기, 소설 등 어떤 문학형식이든 가리지 않고 소재만 있으면 창작하였다. 그가운데 일부 작품들은 이미 여러 간행물에 발표되었으며 또 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에 펴내는 이 작품집에는 민간전설 20여편을 골라 수록하였으며 나의 과거를 수기형식으로 써서 함께 넣었다.

비록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세상은 살수록 살맛 나고 또 나름대로의 성과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이 수준이나 내용 상에서 평범하기는 하지만 역시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서의 고통과 눈물, 기쁨과 사랑이 반죽되어있다.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와 같이 아파하고 즐길수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것이 가장 보귀하다”고 한 위인들의 명언이 메아리처럼 나의 가슴을 울린다. 나는 나의 작품들이 예술적으로 수준이 낮다는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책을 내려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 미처 작품을 윤색할 시간적여유도 없이 내놓는 바람에 어설픈것들도 적지 않으리라 믿는다. 독자들이 타일러 바로잡겠다는 심정으로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

고 가르쳐주었으면 참으로 고맙겠다.

책을 내면서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주고 키워준 스승님들과 이 책을 편집, 출판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리군필

2009년 2월 25일

차 례

하얀 버선(구술: 김화)	1
함박꽃(구술: 김화)	11
산삼새(구술: 리도필)	14
량반회연(구술: 정기천)	19
무우로 변한 산삼	28
착한 두 형제(구술: 안혜숙)	32
새절이새	42
홀리개정목막대기(구술: 리채범)	45
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구술: 리채범)	52
남편의 버릇을 가르친 안해	58
양지새(구술: 김일)	61
장님의 닭알껍질바르기(구술: 서은철)	64
집게처녀(구술: 김화)	67
봉황이 되지 못한 장평	71

개나리꽃	74
먹컬레(구술: 김성귀)	79
불로초를 전하던 길(구술: 리도필)	82
우정금(구술: 정은산)	87
두 장군의 겨룸	90
쌈과 보리고개	93
모란꽃과 장미꽃	95
만천성 자라섬유래	99
쿨룽산	103
거짓말 닳되	106
평론	
리군필이 수집정리한 구비설화에 대하여(김운일) ..	109
수기	
내가 걸어온 길	127

하얀 버선

(구술: 김화)

하얀 버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어느 양지바른 산기슭에 맑디맑은 내물을 끼고 앉은 오붓한 동네가 있었다. 이 동네에서 비단같이 마음씨 고운 한 사냥꾼이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살고있었다.

사냥꾼인 아버지는 활을 들고 나서면 나는 새도 눈을 쏘아 떨어주고 용맹한 호랑이도 화살 한가치로 숨통을 쏘아 쓸어눕히는 명궁수였다. 사냥꾼은 늘 짐승들을 잡아다가 이웃들에게 나눠주었기에 동네는 물론 산너머마을에서도 그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의 마음씨가 고와서인지 이팔청춘에 접어든 딸의 효성 또한 극진하였다. 딸은 하루 세끼 아버지에게 따듯한 밥과 맛갈스런 채를 받쳐올렸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들 때마다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셨어

요?”라고 곱게 인사를 올렸다. 딸은 이렇듯 효성이 지극하고 레의범절이 밝은데다 얼굴 또한 피는 꽃과 같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저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하루였다. 동네의 한 가난한 집에서 아들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이웃에서 고운 처녀를 데려오는 일이지만 사냥군은 자기 집 일처럼 생각하고 닭이 첫해를 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활을 메고 사냥길에 올랐다. 큰짐승을 잡아다가 이웃집 잔치상을 풍성하게 해드릴 생각이었다.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사냥군은 한 산등성이에 이르렀다. 이때 마침 맞은편 산언덕에서 와삭와삭하는 소리가 났다. 사냥군이 바라보니 큼직한 백사슴 한마리가 나무사이로 경충경충 뛰어가고있었다. 그놈만 잡아 메고 가면 잔치손님들을 푸짐히 대접할것 같았다. 사냥군은 때를 놓칠세라 백사슴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윙—” 소리를 내며 날아가 백사슴의 목에 꽂혔다. 경충경충 뛰어가던 백사슴은 통나무 넘어지듯 나가넘어졌다. 담배 한가치를 말아물고 백사슴이 넘어진 곳으로 다가가던 사냥군은 갑자기 “악!” 소리 지르며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분명 백사슴이 화살에 맞아 넘어지는것을 보았는데 백사슴은 오간데 없고 목에 화

살이 쏘힌 웬 나무꾼이 그 자리에 피뭇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분명 백사슴이었는데...”

정신을 차린 사냥꾼은 나무꾼을 들쳐업고 질풍같이 동네로 줄달음쳐 내려갔다. 하지만 나무꾼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동네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와 근방을 돌아다니며 나무꾼네 집을 찾았으나 끝내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별수 없게 된 사냥꾼은 동네사람들의 도움으로 죽은 나무꾼을 산기슭에 고이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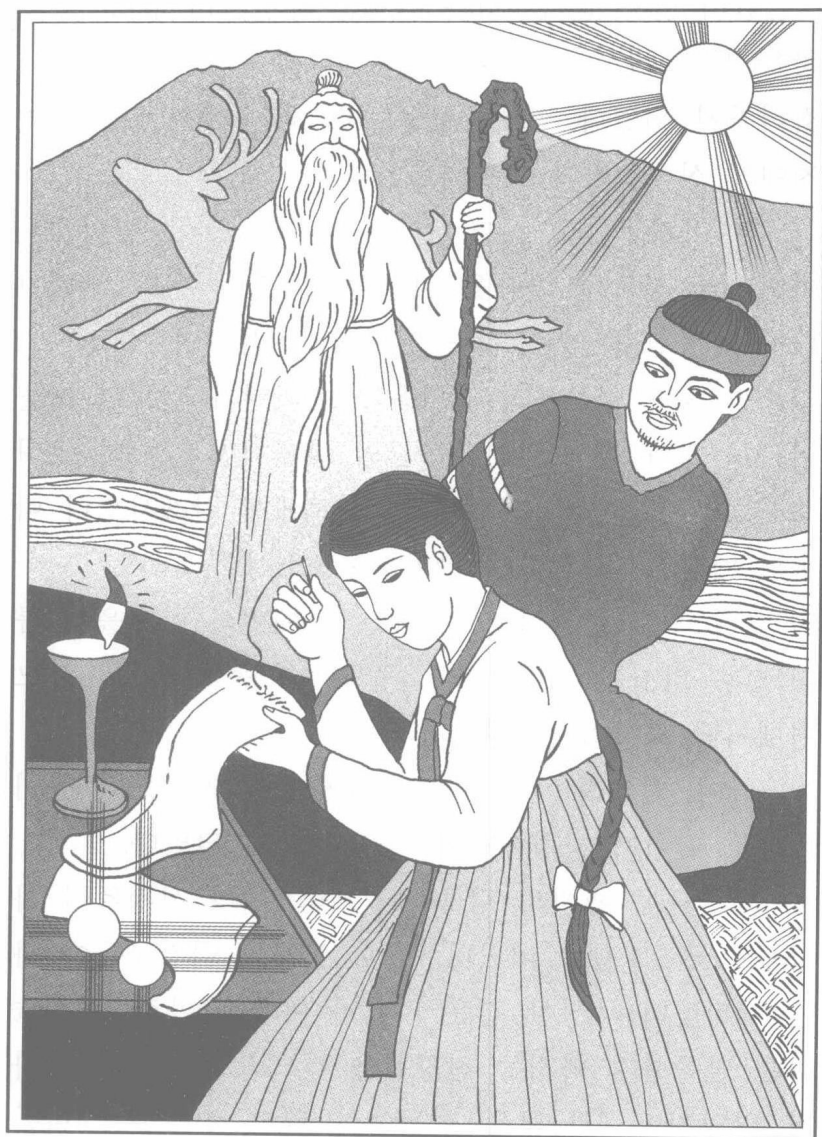
관가에서는 살인죄로 사냥꾼을 잡아들이기로 하였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품에 안겨 동냥젖으로 커서 이팔청춘 꽃나이에 이르게 된 딸은 하늘처럼 믿던 아버지가 관가에 잡혀가게 되자 하늘땅이 무너져 내리는듯 눈앞이 캄캄해났다. 날이 새면 관가에 잡혀가게 될 아버지를 두고 이 근심 저 근심으로 밤을 새우던 딸은 아버지의 발싸개가 다 해진것을 발견하였다. 딸은 길을 떠나게 될 아버지에게 발싸개를 새로 지어드리려고 전에 아버지가 정히 간수해두었던 백사슴가죽을 찾아내여 이기기 시작하였다. 눈물은 줄 끊어진 넘주마냥 딸의 불을 타고 굴러서 백사슴가죽우에 떨어졌다. 백사슴가죽은 재물과 눈물에 반죽되어 이겨져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한평생 남을 도우면서 죄진 일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오셨는데 어이하여 이런 날벼락이 아버지의 머리우에 떨어지나요? 딸의 효성이 부족해서인가요?례의범절이 바르지 못해서인가요? 아이구, 아버지...”

아버지는 귀여운 딸의 가련한 얼굴을 쳐다보느라니 칼로 가슴을 저미는듯 괴로워서 저도 몰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애야, 울지 말아라. 네가 운다고 나의 죄가 면해지겠느냐. 네가 우니 너를 두고 가는 내 마음이 더욱 쓰리고 아프구나. 내 저세상에 가서라도 이승에서 지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살아갈터이니 너 오직 아버지의 분부를 천만번 명심하고 내 화살에 맞아 불쌍히 죽은 그 나무군의 묘지를 아버지의 묘지처럼 보살피며 효성을 다해다오...”

딸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밤도와 백사슴의 가죽을 이기였다. 헌데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어 눈을 잠깐 붙였다가 일어나니 이게 웬 일인가? 백사슴가죽이 한겨울의 눈덩이처럼 새하얗게 바래져있었다. 딸은 너무도 신기해서 새하얗게 된 백사슴가죽을 보고 또 보다가 정성들여 발싸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 관가에서는 사냥군을 잡으러 왔다. 사냥군은 목에 칼을 쓰고 포승줄에 두팔이 묶이여 관가에 잡혀가게 되었다. 딸은 정성들여 지은 발싸개를 아버지에게 신겨드리며 흐느껴울었다.

“아버지, 이걸 신고 길을 떠나세요. 이 발싸개는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을 보살필것이오며 우리 부녀가 다시 상봉할수 있는 길도 열어줄것이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땅이 없는것과 같사옵고 아버지가 없으면 하늘이 없는것과 같사온데 나무군의 삼년제만 끝나면 소녀도 부모님을 따라가서 부모님 슬하에서 살겠사오니 이 딸의 마음 부디 헤아려 살피주시옵소서.”

“너 무슨 당치않는 소리로 이 애비의 마음을 괴롭히느냐. 다시는 짧은 생각을랑 말고 동네분들을 부모 형제처럼 모시며 잘 지내거라...”

딸이 엎드려 절을 하자 발싸개에 뜨거운 눈물이 비오듯 떨어져 눈덩이같이 더욱 하얗게 되었다.

라졸들은 관가의 령을 받고 왔는지라 사정없이 사냥군을 끌고 길을 떠났다. 이때 삼시에 먹장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창살 같은 비발이 마구 쏟아졌다. 라졸들은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을 걷느라 여간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사냥군은 힘들이지 않고 진창길을 마른 땅 났듯하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보니 하얀 발싸개에

흙탕물이 한방울도 묻지 않았다.

사냥군은 그날로 형장에 끌려나갔다.

“둥둥둥” 북소리가 세번 울리자 서리발 치는 칼을 빼여든 도부수가 천지신령에게 세번 절하고는 긴칼을 허공중에 번쩍 들어올려 사냥군의 목을 내리쳤다. 헌데 이게 웬 일인가? 도부수가 분명 사냥군의 목을 내리쳤는데 칼은 비껴 날아서 평시에 악한짓을 많이 하던 관가나부랭이의 다리를 뭉청 끊어놓았다. 그 바람에 형장에 나와있던 관가나부랭이들이 겁을 더러 집어먹고 눈이 화등잔이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른 도부수가 나서서 사냥군의 목을 쳤다. 순간 하얀 빛이 반짝 칼에 닿더니 칼날이 절령 하고 땅에 떨어졌다. 이어 세번째 도부수가 나섰다. 하지만 이 녀석은 지레 겁을 집어먹고 칼을 써보지도 못한채 얼음우에 넘어진 둥글소처럼 눈흰자위만 희뜩거렸다.

관가에서는 할수없이 사냥군을 옥에 가두고 이 일을 나라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자 그럴수가 있느냐며 만조백관들을 거느리고 이 고을에 왔다. 사냥군은 다시 형장으로 끌려나왔다. 임금이 어명을 내렸다.

“너희들은 모두 칼과 도끼를 귀신처럼 휘두르는 나라의 이름있는 장수들이 아니냐? 죄수의 목을 한칼

에 쳐보거라!”

임금의 어명이 떨어지자 “둥둥둥” 북소리가 울렸다. 이어 도부수들이 줄쳐나와 흑자는 입술을 사려물고 흑자는 눈에 쌍불을 켜고 흑자는 “악” 하고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사냥군의 목을 내리쳤다. 현대 이상한 것은 사냥군의 목에 칼날이 떨어질 때마다 사냥군이 신은 발싸개에서 반짝하고 하얀 빛이 나는 것이었다. 이에 임금은 도부수들에게 칼질을 멈추게 하고 사냥군을 앞에 불러세웠다.

“넌 명색이 사냥군인데 어이하여 산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인명을 해쳤느냐?”

“네. 소인은 동네에 경사가 있기에 산짐승이라도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하고자 아침 일찍 사냥을 나갔사 온데 마침 백사슴 한마리가 경충거리고 뛰여가는 것을 보고 화살을 날렸사옵니다. 분명 백사슴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보니 백사슴이 아니라 나무군이 목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있었사옵니다.”

“백사슴을 보고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을 맞고 쓰러진 것은 나무군이더라 이 말이나?”

이때 맞은켄 산에 하얀 옷을 입은 도인이 나타나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렇소이다. 나는 산신령인데 백사슴으로 화해서